



행복한 동행

발로 쓰는 미얀마 선교 이야기 11th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오늘 내가 호흡하는 이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에서 첫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케 하시어 또 하루를 살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인정하며 하루를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숨 쉬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수따웅대). 그리고 미얀마 불교도들도 역시 기도합니다(수따웅대). 이렇게 ‘기도하다’ 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여 년 전 미얀마 첫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성경을 미얀마어로 처음 번역할 때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불교적 용어들을 사용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불교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해석은 달리해야지요). 기도하다 “수따웅대”는 ‘상을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자신이 곧 스님(폰지)이 되어 ‘신(파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는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대상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또한 쌓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대부분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와 날마다 대화합니다. 아버지께 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너무나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1-33)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쓰임 받는 기쁨

저희가 양육하는 자매들 가운데 한 명은 김치를 잘 담가 현재 한국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맛을 낼 줄 아는 자매라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과 제과 제빵도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미얀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원과 과외가 금지된 상황에서 저희 자매가 몇몇 한국 선교사들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나 꿈도 없이 단순히 먹고 사는데 그쳤던 불교도 자매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배워서 남을 돕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역 간 이동 통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하루 5~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1-2주 사이에 총 확진자 5천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방역 실패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왔다고들 얘기합니다. 미얀마도 1차 코로나 때 보다 2차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는 쉼비다 주안센터로 이동이 어렵기에 저희가 사는 현지아파트 한 곳을 준비하여 그곳에서 예배하고 자매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현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비록 현 코로나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역을 펼칠 수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ray for Myanmar

- ① Covid-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 ② 먼저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충성된 제자를 길러내도록.
- ③ 가족 모두에게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홈스쿨 가정이 되도록.
- ④ 훌레구 예배당 수리, 울타리 공사, 사역준비 등의 비용이 마련되도록. (스포츠교실, 공부방 등)
- ⑤ Covid-19 상황에서도 훌레구 교회사역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 주시도록.
- ⑥ 바고 밍글라 지방사역이 잘 진행되어 복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⑦ 베이킹을 통해 사역이 확장되도록. (비즈니스를 통한 자립사역, 현지인 삶과 사역 자립 위함)

2020. 9. 22 미얀마를 주님께
신지명 백사명 선교사 가정 올림